

지금 이시각

2024. 9 TIME NOW

스물일곱번째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마주_ 탈레 노이 이야기[Thale Noi] (2)

원고 수 ★★★

김희진_ 시위 일지

원고 수 ★★★★★★★★★★★★★★

김유주_ 아디오스, 방비엥!

원고 수 ★★★★★★★★★★★★★★

X_ 그 곳에 가고싶다 : 평택(平澤)

원고 수 ★★★★★

오종원_ 부산비엔날레 후기

원고 수 ★★★★★★★★★★★★★★★★★★★★★★

이채연_ 일상의 바니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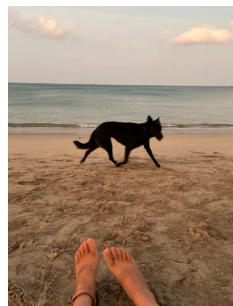
원고 수 ★★★★★★★★★★★★★★★★★★★★★★

<지금 이시각>은 주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집중합니다. 창작의 지속과 그 누적이 가져올 성과에 대해 연습하고 시도하는 장으로써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감을 얻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향해가는 노력과 인내가 있을 때, 분명 목표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은 그런 행위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며.

탈레 노이 이야기 [Thale Noi] (2)



마주(Maju)

뒤늦게 정체성 없음을 알게 된 서른초기



AM5:30

안개와 함께하는 아침

할아버지의 보트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중.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손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





파탈롱 지역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여 약(Yeo Yak)이 보인다.

저 거대한 그물을 아래 내리고 지렛대의 원리로 사람이 끌어올려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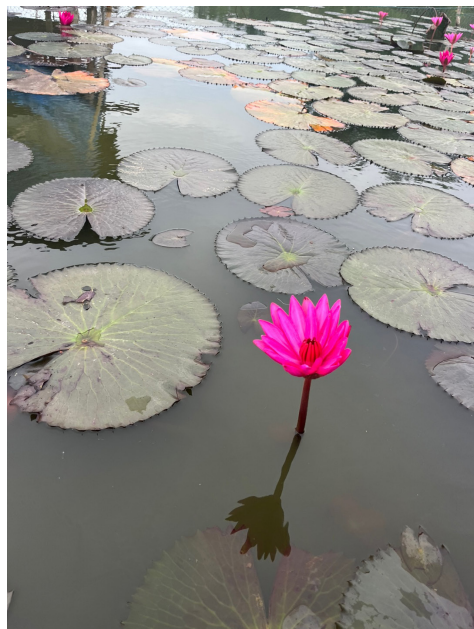
드디어 드러나는 탈레 노이.

정말 바다같이 드넓은 수면 위에 거대한 하늘이 비춰져 하늘과 라군을 구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보트의 모터를 귀를 때리고, 하늘과 수면이 구별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내 눈을 마구 스쳐 지나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다.

내가 잠이 덜 깬 걸까?

너무 높은 하늘과 사방의 경이로운 풍경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붉은 꽃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였구나.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멋진 꽃을 볼 수 있다며 나를 홀리더니. 연꽃이었구나.

놀라울 정도로 비비드한 색감의 연꽃은 한 두 송이 눈에 보이더니.. 어느새 나는 연꽃 밭 한 가운데 있었다. 경이로웠다. 내 생애 이렇게 많은 연꽃 한 가운데서 부유할 일이 있을까?

아이폰 mini13의 한계. 비루한 사진에 속상하다.





내 친구 Jom과 Bam. 그리고 연꽃 나라 공주님이 된 Maju



오랜 기간 태국을 여행하면서 멋진 정글과 빛나는 바다를 보았지만, 이만큼 생명력이 느껴지는 풍경은 처음이었다. 새들은 아침 사냥을 나와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놓는다. 탈레 노이가 지닌 자연은 마치 친절한 이웃같았다.

풍요와 생명력이 가득했던 탈레 노이. 언젠가 또 다시 온다고 다짐한다.

밤의 집으로 돌아와 코크와 스프라이트의 배웅을 받으며 송클라행 버스를 기다렸다.





멋진 경험을 선사해 준 Bam에게 감사하며.

파탈롱 안녕. 🐱



김 희 진

노동자

시위 일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대개 추락을 지켜보는 일을 즐겨워한다. 높은 곳에 위치를 잡을수록, 그것은 아주 큰 위험/유화에 관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도 괜찮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낮은 곳에서 외치는/외친/외쳐진 일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도 큰 죄책감을 부르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것이 일종의 세계관을 담당하는 동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자 하는 욕구가 매번 생기는 것이 꼭 자연스럽다. 낙하와 그 모습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아닐까. 해방을 시위하는 캠프에서.

구매를 위한 혼종적 세계관에서 아이돌 또는 그 산업이란 모종의 경쟁과 철저한 도태로만 이루어진 착취 과정인데, 소비자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방관/가담자로서 (그들 우상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위선을 행해야 한다. 아이돌은 매순간 사랑의 뜻을 전하는 요정과 같지만, 그것이 아닌 순간을 절대로 밖에 비쳐서는 안된다. 주체, 그 자체를 외화하고,



자본에 귀속시켜 재/창조/형성한 후 산업의 일부로 적용되어 대상화한(된) 그것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당장이 착취의 여실한 과정이라는 사실조차도) 편이 생존과 그것의 단기 지속에 유리하다. 당장 나는 빼어난 빛으로 허상을 가려낼 수 있으니까.

거지 같은, 스스로, 자신을 되뇌는, 이상한 검열을 사용하는, 사용해서 그것을 죽이는, 더는 멈출 수 없는, 무엇도 조종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상기해야 하는. 알 수 없는 수행을 하는 생물은 길거리에 몇 가지 좌표를 찢어 넣은 후에 각기 다른 온도를 가진, 숫자를 가진, 때로는 각자가 대상에 근접하는 성격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왜 그것을 발화하여 부끄러움을 꺼내고 피로한 일들을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각이 직관이나 본능이라는 핑계로 욕망을 분출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내 잊히고 다시는 꺼내질 일이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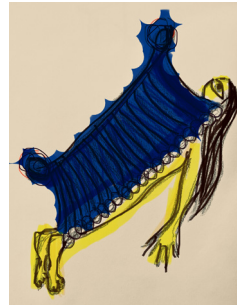
끈적한 상자 안에서 (그 표면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몸을 구겨 살갓을 이리저리 비비적거리다 일어났는데, 찢찢하거나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을 상자 밖에서도 숨기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이유를 되물었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잘못했다고 생각한, 잘못했음에도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지난 일들 뿐이었고, 언젠가 그 벌금이나 벌칙을 크게 치러야 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 앞이래도 마음은 때때로 바람에 휘날려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을 만든다. 확실한 대답을 그대에게 전할 수 없대도 나는 마법을 걸어 그 일을 적당한 틀에 가둔다. 그것은 쉬이 잊히지 않지만, 굳이 신경을 거스르지도 않는다. 이미 그곳의 가장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현현은 아니다. 🐱





X

작가 & 전시기획자

그 곳에 가고싶다 : 평택(平澤)

화성에서 일 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평택에 다른 업체에 근무를 하게 돼 이사를 했다. 회사 생활의 반복적 패턴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예술’이란 단어는 내게 마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화성의 거친 공장지대에서 평택의 논밭으로 둘러싼 공간을 총 4년 넘게 겪으며 내가 추구했던 것의 ‘부재’는 우울증과 자격지심을 내 맘속에 처절하게 몰아넣었다. 꿈을 점점 잃어간다고 생각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이 현실이고 내가 과거에 예술가로 활동했던 것과 그 장소까지 모두 백일몽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나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당시 오랜 기간의 극도의 우울함은 결국 보들레르(Baudelaire)가 표현한 ‘극도의 우울증(Spleen)’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화성 팔탄면에서 ‘안중’에도 없는 평택 안중읍에 회사 집을 받고 청북읍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대표와는 독일 드레스덴의 콘크리트 블록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미 내가 독일어를 하는 것을 보고 신공장 설립에 PM으로 가담하길 원했다. 연봉 협상이 안되는 화성 회사보다 차라리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택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근을 해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부분 회사 직원은 여자로서 나의 일 잘하는 실력을 싫어했고 더구나 승승장구로 승진을 온 지 6개월 만에 해버려서 난 회사 모든 직원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다. 직원은 대부분 주변 출신이거나 보통의 삶을 살아오는 직장인이었다. 회사에 다니며 한국 직장인이 종종 질투가 참 많다는 걸 느꼈다. 특히 여직원 두 명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결혼을 했거나 이혼녀였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차가 바뀌는 것도 다 싫어해서 심지어 내 자리만 불을 안 켜주거나 나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같이 나눠야 할 회사 업무조차 도와주지 않았다. 3년을 참을 ‘인(仁)’으로 회사 생활을 하였다. 그렇지만 난 늘 친절하게 하려 노력했고 정도가 아니다 싶었을 땐 말로 저항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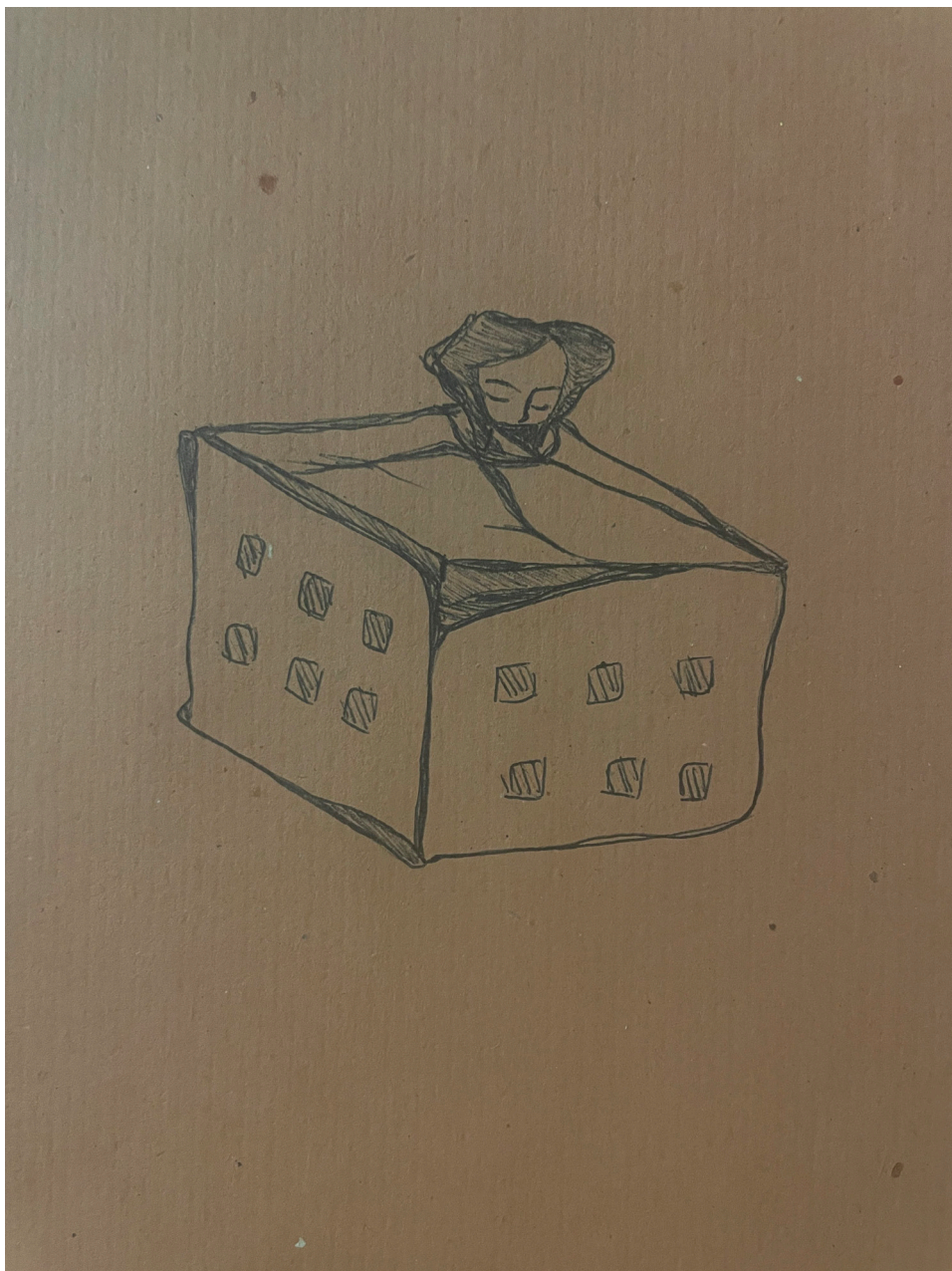
유럽 스타일의 방식으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지만 그리 과한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다.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온 고졸 출신 두 여성에게 내가 참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동종업계 미국 대기업, 독일 중견기업과 계약 2건을 성사시켜 실력을 키웠다. 이 회사 후 독일 기업으로 이전했을 때 내가 참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직 생활은 참 고단한 삶이었다. 여성으로 넘어서야 할 장벽이 많다는 것, 늘 여성성을 숨기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나의 예술가적 기질도 때론 내가 맡은 업무에서 나의 능력을 저하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 내 몸에 문신이나 내가 관심이 있는 예술은 사실 내가 당시 일하는 곳에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정도로 제조업이라는 분위기와 한국의 조직문화는 보수적이었다. 회사 사람은 날 항상 특이하거나 소위 ‘자존심이 높은 여자’로 취급했다. 당시 대표도 내가 예술을 좋아하고 독일 협력사 대표도 예술품을 모으는 수집가에 요트광인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대표는 성실하게 살며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존경할만한 사업가였다. 그는 한국 사업가 특유의 골프광에 소주, 스테이크 좋아하는 한국 노동자(프롤레타리아) 문화와 미국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보편적 사장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회사 직원은 나에게 편안하게 말을 걸었고 특히 스리랑카 직원은 격 없이 대하며 데이트 신청을 하곤 하였다. 공장장인 한 직원은 평택의 땅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는 주말에 논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종종 이 직원에게 쌀을 사다가 대전의 아버지 댁에 보내곤 하였다. 여직원 중 한 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날 너그럽게 대하며 태도를 바꿨지만, 나의 삶이 거의 막판에 도달했고 그때 이미 내가 갈 곳을 정해놨다. 회사 사람 대부분이 평생직장으로 회사에 다녀 처음부터 나를 ‘적’으로 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무지함’은 모르는 폭력성을 띠고 있고 당신이 이를 깨닫고 상대방에게 방어 기질을 내려놨을 때는 친분을 쌓기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하루는 이 여직원이 평택의 송탄을 얘기하였다. 난 놀러 가기로 생각하고 안중에서부터 논밭을 가로질러 운전해 도착했다. 유명한 버거 집과 여러 외국 식당 옆에 오산 항공 기지와 평택 험프리 부대가 자리 잡았는데 서울의 삼각지 같다고 느꼈다. 매우 재미있는 것은 이후 송탄에서 미군 부대에 일하는 미국인 2명과 데이트를 했지만 역시나 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루는 독일 출장을 갔는데 독일 영업 이사가 나를 보러 쾰른까지 왔었다. 저녁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 데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털어놨다. 대표님은 이미 눈치를 채고 그냥 빠졌는데, 당시 나는 우울한 삶에서 누구에게도 감정이 서지 않았다.

한국에 들어오고 거의 4년은 나의 이상이 도달하지 못한 우울증(Spleen)으로 몸이 여기저기가 아팠다. 2016년 파리에 갔을 때 한 예술 감독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 네가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은 예술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 아마도 난 ‘사회적 적응’과 ‘나의 존재에 대한 무지함’을 동시에 겪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평택이란 도시의 거친 느낌은 화성과 사뭇 달랐다. 화성은 한국이란 땅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을 느낄 수 있지만, 평택은 미군 부대와 대기업의 투자로 뭔가 정체성이 급진적으로 바뀐 마치 시장 안의 여러 이름 모를 사람들이 북적대는 느낌이었다. 평택 사람들 사이에 송탄사람과 평택 사람으로 나뉘는 것도 이분법적으로 도시와 시골 사람으로 나눈다고 느꼈다. 지금은 고덕 사람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원의 삼성전자, 평택의 삼성 반도체, 이천의 SK 하이닉스처럼 경기도의 도시 신화에는 대기업이 빠질 수는 없다고 느낀다.

청북읍 회사에서 평택역이 있는 곳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렸다. 지방 도로를 주행하며 출퇴근을 하는 것이 늘 일상이지만 안중읍과 청북읍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다. 하지만 평택 시내라고 하는 평택역까지 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 어느 날 그 구간을 달리다가 우연히 수력 발전소를 보게 되었다. 수증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황량한 공간에 파란색으로 장식된 세 개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다시 갈망하게 되었다. 집에 와서 종이에 끄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 다시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무언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작동한다고 생각했다. 스케치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감정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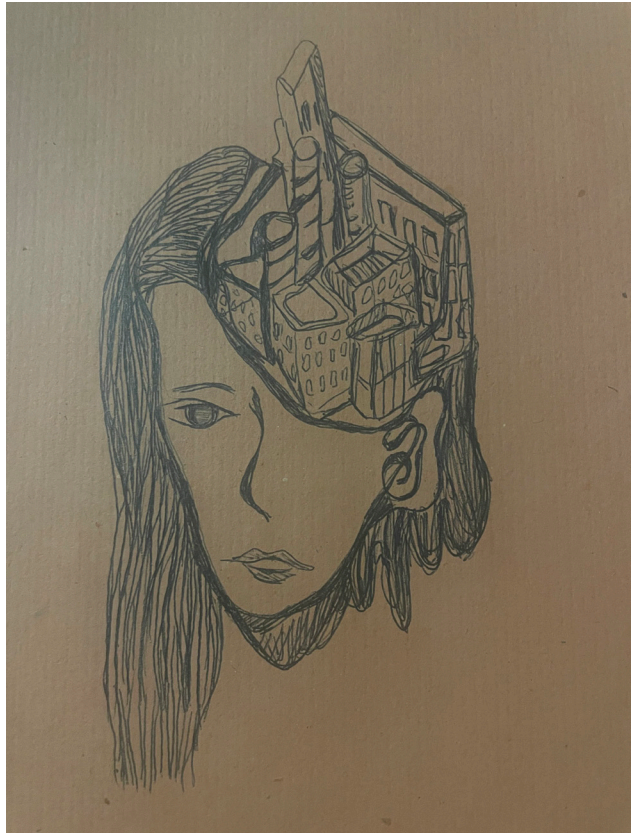
당시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고 거의 주말에도 시간 없이 평택과 부산을 다녔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작업을 해 나아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내가 직접 콘크리트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식을 만들고 싶었고 전에 회사에서 일했을 때 알던 매우 유능한 연구소 직원에게 조리법 도움을 요청했다. 회사의 스리랑카 직원에게도 골재를 몰래 부탁해서 콘크리트 블록을 여러 개를 원룸에서 혼자 만들었다. ‘내가 다시 예술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존재의 위기”를 느꼈고 다시 광기를 느끼고 싶었다.

삶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특히 우울증이 몰려오면 난 이 기분을 느끼려고 했었다. 주말에 원룸에서 나와 안중 읍내를 걸으면 여기저기 지어지는 신식 아파트 사이로 논과 밭을 보면서 내가 가고자 했던 장소는 허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서울의 문화적 공간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커피숍도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있는 박물관이나 아트 센터도 내가 원하는 공간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작업 공간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아니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꿈을 꾸고 있었다. 인간관계가 공간에 투입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공간은 결코 내가 거부되지 않을 공간이었다. 이 “부재”의 깨달음은 나를 수년간의 잠에서 깨우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한

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다 줬다.

서서히 예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확신은 없었다. 2019년 겨울 독일 자부리켄(Sarrebruck)을 방문하고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온 후 결국 이 회사와 헤어지게 되면서 내가 다시 예술로 돌아가는 길이 시작되었다. 마치 수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질 용기가 서지 않고 반복되는 싸움에 지쳤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했던 것처럼 운명은 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나의 인생에 발전을 가져다 줬다. 수 년 전 나를 데려갈 죽음의 천사가 했던 말처럼 이미 나의 길은 정해져 있었다. 🐱

2014-2019



아디오스, 방비엥!



김 유 주

존재하기를 꿈꾸는



1. 방비엥 개들은 낮에는 늘어져 낮잠이나 자다가 해가 지고 숙소로 가는 길이면 여지없이 잇몸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고 짖었다. 우리는 매번 코 앞에 숙소를 두고 한 참을 돌아서 숙소로 갔다. 개들이 강패처럼 골목을 막고 서 있는 길을 뚫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돌아가는 자신을 타하면서 숙소로 가야했다. 용기가 없다는 건, 배짱이 없다는 건 또 시간과 비용을 손해보게 한다. 망할 멍멍이들!

2.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맥주 값이 저렴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바가지 없이 맥주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맥주병을 사고 멍멍이들을 피해 숙소로 들어왔는데 병따개가 없다. 옷걸이, 티스푼, 열쇠, 머리빗 등등 실패하다가 가방 고리로 맥주병을 따는 기술을 얻었다. 숙소에서 가방에 달린 고리로 맥주병을 따고 노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로피를 세팅하고서는 '휴 오늘도 무사히 숙소로 들어왔구나' 한숨을 쉬었다.





3. 방비엥 흔한 숙소 뷰. 매일 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비오는 날, 안개 낀 날, 흐린 날, 새벽이고 밤이고 매일 다르게 맛있었던 뷰. 여기는 신비스러운 대기가 있다. 필터를 씌운 것처럼 모든걸 촉촉하고 차갑고 깊게 보이게 하는 그런 대기. 과학은 잘 모르지만, 분명 있다.



4. 낮이 되면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진다. 이 조용하고 작은 동네를 산책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어김없이 산책하는 꼬꼬닭들. 한국의 치킨 소비량을 위해 좁은 틀 안에 있는 닭들에게는 이 나라가 선진국일까? 걷다 보면 도로 양 옆으로 소들이 쉬고 있다. 손 내밀면 당을 거리에 있는 가축들. 이렇게 울타리도 없는 도로 옆에 가축(家畜)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역시 낯설다.



5. 나는 숙소 근처의 술집을 자주 들락거렸다. 영국인, 호주인, 프랑스인 할 것 없이 술만 취하면 함께 수다를 떨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영어는 술에 취해야만 제 실력을 드러내는 것일까, 몇 시간이고 토론을 벌이고 웃고 떠들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된 첫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술집을 들락거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가게의 트레이드마크 '판다'. 그리고 호주에서 온 친구가 돈을 주고 구조해왔다는 '럭키'. 어미를 잃은 이 천진난

만한 강아지와 감동을 주는 럭키를 찾아오는 손님은 나 뿐만이 아니었다. 이 작은 동네에서도 어떤 개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개들은 애정의 대상이 된다.

6. 레저로 유명한 방비엥에서도 우리는 어떤 투어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강가로 나가 롱테일 보트를 탔다. 선착장부터 아름다웠다. 태양을 보내주고 달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는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었다.

그저 이 길다랗고 좁은 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온 감각이 요동쳤다.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무리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모든 것이 풍경이었다.





7. 남폰식당은 하루한번, 많으면 두 번 까지도 갔었다. 첫날 라오스음식인 카 오빠약 과 라오스국수 를 시켰는데 김치를 밑반찬으로 내주셨다. 동남아여행하면서 한식당을 제외하고는 ‘밑반찬’이라는 걸 만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마트에서도 비싸서 살까말까 망설이던 김치다. 김치를 그냥 내어주시다니. 감사하다고 또 몇 번 고개를 숙이고 김치를 맛봤는데 아? 동남아 맛이 나는 이상한 김치를 예상했는데 한

국김치에 가까운 맛이다. ‘이건 김치볶음밥 아니면 김치찌개다.’ 하는 그런 김치.

8.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다시 가야했다. 김치찌개는 진짜 내가 한국에서도 좋아하던 그 김치찌개 맛이였다. 동남아음식이 지겹다고 앵앵대던 내 마음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다. 환희에 가까웠다. 매일 그렇게 김치찌개, 신라면, 카오빠약을 돌려먹으며 친절한 주인아주머니 얼굴을 뵈러 갔다. 한번은 여행하며 알게 된 동생과 만나 술을 먹다가 늦은 시간에 찾아갔는데 사장님 아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는 손을 흔들며 들어오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마침 아들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고, 우린 케이크까지 얻어먹고 나왔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한국에서도 술집에서 생일파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과 케이크를 나눠먹었었는데. 🐱





9. 남들 다 가는 블루라군을 가보았다. 돈을 아낀다고 자전거를 타고 직접 가보는 대 모험을 펼쳐봤다. 자전거로 기차역까지 갔다가 블루라군까지 비포장도로와 어설픈 포장도로를 달렸다. 블루라군이 목전인 듯 한데 자전거가 이상하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돌아가는 길은 가로등도 없다. 결국 블루라군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온 몸이 만신창이였다.

10. 결국 스쿠터를 빌렸다. 거울 두 개 달린 것 중엔 가장 싼 스쿠터였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곳 사람들은 스쿠터에 달린 거울을 떼어내고 타서 거울달린 스쿠터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오스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데, 자전거로 가본 길을 스쿠터로 달리니 잘 닦인 고속도로 마냥 신나게 달렸다.





11. 여유롭게 블루라군 도착.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우기인 탓에 물 색은 탁하고, 실제로 물도 아주 깊어서 물 공포증에 맥주병인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한참 뒤져서 발목정도 깊이의 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다. 아무도 이 낮은 수심(?)의 물가에는 오지 않았다. 덕분에 아주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맥주병들만 올 수 있는 ‘프라이빗 풀’이다.

12. 다시 찾은 술집. 약에 중독된 자신이 싫어 영국을 떠나 20년 째 집 없이 영어강사 일을 하며 전 세계를 떠도는 타나는 여전히 대마를 달고 산다. 명예 방비영 주민 영국아저씨는 오늘도 방비영 예찬론을 펼치고, 럭키를 구조하고 동네에 방생(?)한 조용하지만 마음 따뜻한 호주아저씨는 오늘도 지정석에 앉아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한데 어쩐지 마음이 울컥하고 슬퍼진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이제 방비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비엔날레 후기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벌써 부산비엔날레(이하 부비)를 보러 다닌 지 16년째이다. 그동안 부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지금의 현대미술관이 아닌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였을 때 규모의 아쉬움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광주가 가진 거대한 서사가 참여작가들에게 주는 임팩트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물론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양 날의 검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많이 멀기도 하다.

올해 두 비엔날레를 다 방문하고 나서도 느끼지만, 요즘에는 부비를 더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다. 애초에 비교해서 우열을 정할 것은 아니고, 매번 감독과 참여작가가 다르니 의미가 있겠나만, 근 몇 년은 부산 방문이 더 좋았다. 아마 다음 글에 후술하겠지만 이번 광주의 경우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 전시 자체도 부비가 훨씬 재밌다고 느꼈다.

또한 올해에는 KTX와 연계되는 패키지 상품이 출시되었다. 비엔날레 티켓과 왕복 승차권이 9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기간도 1박 2일에서 2박 3일까지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승차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크게 아침에 출발, 저녁에 복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되지 않았다.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접이식 미니벨로와 함께하였다. KTX에 싣는 것도 순탄했고, 부산역에서 부비가 열리는 부산현대미술관까지 이동도 많이 어렵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부산역에 내려서 다시 현대미술관이 있는 을숙도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다. 을숙도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튼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은데, 자전거로는 어떻게 가 볼 만은 하다.

다음은 이번 부산비엔날레를 방문 후 느낀 점을 기록해보았다.

1. 코스는 초량재, 부산근현대역사관, 비엔날레 본관 순. 스케줄 상 한성1918은 방문하지 못하였다.

비엔날레가 본관과 지역 명소를 사이드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관람자를 번거롭게 만든다는 단점도 있는데 이번 동선이 나쁘지 않았다.(광주 파빌리온은 반성을 해야 한다. 추신. 원래 이 괄호 안 문구는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하기 전에 남긴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동선은 더 별로였다. 이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을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본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다 근접해 있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방문했던 8월 17일은 부산 피란수도 행사가 근현대역사관 자리에서 열려 일정과 장소가 겹쳤다. 그래서 더욱 볼거리가 많은 투어였다.

2. 이번 부비의 제목인 <어둠에서 보기>는, 비엔날레라는 것이 결국 현시대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표면 위로 드러내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게 로컬의 특수성(가령 광주의 민주화) 등을 제외하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유니크한 주제 의식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다소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거론함에도 그 방식에 있어서 특정 민족이나 소수자, 여성이라는 관점에 풀어내는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고 본다.

3. 손에 꼽고 싶은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타링파디_목판화 작업들(메인을 이루는)

타링파디는 콜렉티브 팀 이름이란다. 비엔날레 오프닝 직후인 17~18일 주말 동안 타링파디가 제작한 작품 목판을 참여 관객에게 찍어주는 일종의 관객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티셔츠를 갖고 방문하라는 공지가 미리 있었으나,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별도 마련된 A2 사이즈 정도의 종이가 마련되어 있었다.

작가 중 한 명이 유리판에 잉크를 깔고 목판에 색을 입히는 방식을 시연하고, 다른 한 명이 이 참여자와 함께 잉크가 묻은 판과 종이(혹은 티셔츠)를 설치작품 중앙 무대로 이동한다. 관객보고 직접 잉크를 묻은 목판을 들고 움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랬을 것이다.

이어 바닥에 목판과 종이를 깔고 관객보고 직접 위에 올라가 목판화를 완성하라고 한다. 참여자는 작가의 인솔하에 목판을 밟으며 춤을 추라고 권유 받기도 한다. 약 A2 정도 되는 사이즈인 만큼 앞뒤로 꺾꺾 밟다 보니 일종의 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다. 완성된 목판화는 연필로 관객이 직접 싸인 한 후, 작가가 한 칸에 늘어놓아 약 두어 시간 정도 말리는 시간을 갖게 한다. 전시를 다 보고 오니 신문지로 이를 둘둘 말아 건네주더라.

참여자들은 ① 전통적인 목판화의 인화 방식을 볼 수 있고 이를 직접 찍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사본 제작에 참여) ② 이를 통해 해당 목판화 작품을 소장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팀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판화가 기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맞닿아 있으며, 이를 관객과 함께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중미술 내에서 판화가 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점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



타링파디_목판화, 관객이 함께 하는 목판 프로그램 장면

2) 카를라 아로차, 슈테판 슈라넨_말벌집

작품은 거대한 설치작업으로 플렉시 글라스라는, 마치 크롬 재질처럼 빛을 반사하는 재료를 활용하였다. 이 재료가 개당 약 30cm의 격자의 형태로 제작되고 거대한 모빌처럼 전시장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단 보자마자 상당한 압도감을 느낀다. 거대한 상들리에를 보는 기분일까. 부비의 특성상 1층에 대형 설치작업을 몰아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작업이었다.

당시 전시장에 비치된 설치문에서는 말벌집을 마주한 것처럼 일종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말이 언급되기는 하였는데 상황상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비엔날레라는 특성상 짧고 함축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 다소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작품 자체가 가진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하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로 한복판, 빌딩 숲의 도상이 느껴져서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로 말벌집이라면 얼추 맞다는 느낌도 든다.

3) 한 명원_밤의 수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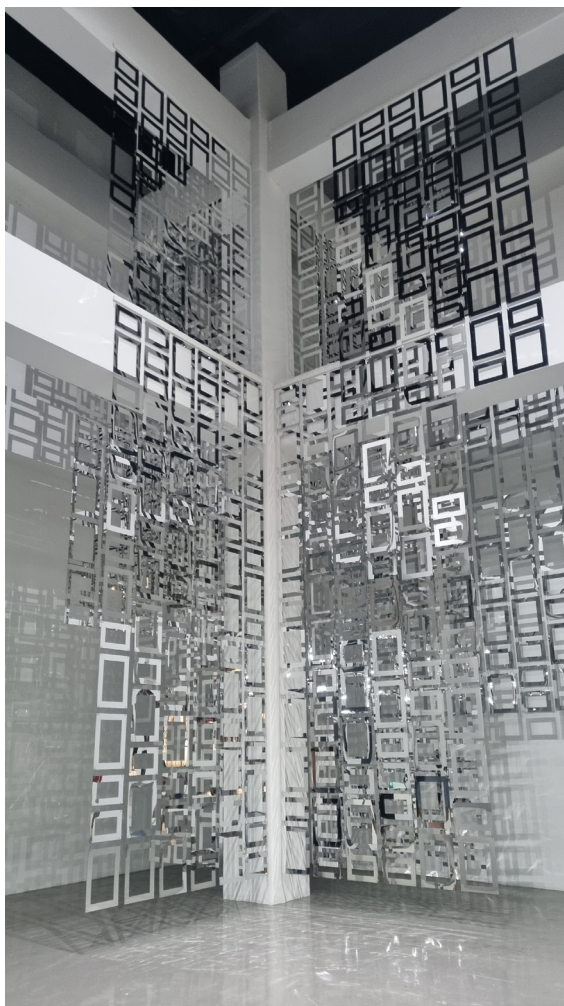
이번 부비의 제목 <어둠에서 보기>와 잘 맞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부비에서 1층이나 입구에서 공개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반적으로 작품에 무게감이 있어 동선의 텀을 둔 것 같았다. 작품은 2층에 마련되어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로 여성과 어둠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으로서 겪거나 가지게 될 어떤 경험, 상대적으로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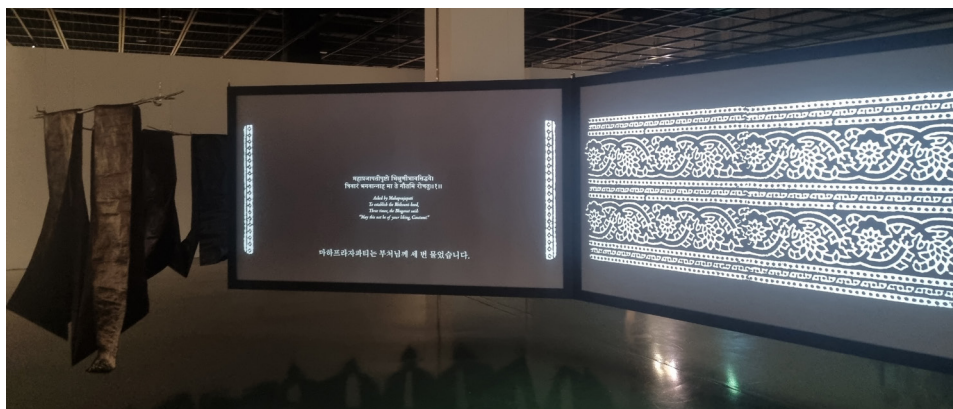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영상이 교차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들의 인터뷰(나레이션)가 상징적인 퍼포먼스(임신 후 여성의 튼 배를 보여준다던가)와 함께 나오며, 또 다른 영상은 불교 경전 내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검은색 전통 이미지와 함께 흘러나오는 것이다. 두 성격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교차로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쪽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영상이 상영되는 벽면은 이어져 있지만 번개 모양처럼 중간이 꺾인 3면에서 상영된다. 첫 번째 면과 세 번째 면의 영상은 같은 자막을 사용하지만, 영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한 퍼포먼스를 카메라 두 개로 나눠 찍은 느낌일까. 영상 내 퍼포먼스들이 전반적으로 잔잔해서 어떤 면에서 봐도 아쉽지는 않다.

물론 이번 부비를 꼭 여성이라던가 무거운 이야기만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번 부비의 주제 의식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 같아 좋았다.



카를라 아로차, 슈테판 슈라넨_말벌집



한 명원_밤의 수트라

4) 홍진현_더블슬릿 5) 신학철_한국현대사

둘 다 개인의 관심사라 인상 깊게 보았다. 더블슬릿은 별도의 상영관까지 만들어진 약 60분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한국 노동운동의 한 역사인 1987년 울산에서 벌어진 현대 노조 파업 중 분신을 한 열사의 이야기였다. 나 역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느낀 것, 공공의 이념과 목표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이 가지는 딜레마 등을 머릿속에 품고 있던 지라, 그런 지점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았다.

신학철 작가님의 한국현대사야 워낙 교과서적인 작품이지만 이번 그림들은 처음 보는 작품들이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엮어진 것을 보며 새삼 교과서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6) 라즈야쉬리 구디_지나친 겸손으로는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없다

인도의 불가촉천민 계급 출신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품을 보면 더욱 느껴지게 많다. 정보로는 인도에서 수행자가 그릇을 뒤집는 행위를 통해 동정을 거부하는 수행법이 있다고 하던데, 전시가 시작되는 첫 주말에 작가가 관객들에게 그릇을 받아 바닥에 놓고 뒤집는 퍼포먼스를 수행했다고 한다. 사실 부비에 내려가면서 제일 기대되던 퍼포먼스 중 하나였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 못하였다.

작업 자체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젊은 예술가가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수행이나 성찰의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를 관객에게 확대하여 보여주려는 모습에 ‘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대체로 다 비슷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실제 작가의 나이는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야욕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다만 부비에 설치된 작품은 앞서 말한 퍼포먼스의 결과물일 텐데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다.

7) 최대진_김추자 메들리

김추자라는 가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독재정권 시절 대중문화와 정치의 관계학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신화들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나도 과거 금지곡에 대해서 작업을 시도해본 적 있는데, 당시 대중문화에까지 팽배하게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압박은 도시의 괴담처럼 느껴질 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았다.

아무튼 작업 자체는 사실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이었다. 김추자의 노래 8곡을 24시간으로 늘려놓아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명상이나 기도 음처럼 들리는 사운드를, 전시장에 비치된 비치타월 위에 앉아 감상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그런 사연들,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상과 그것이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금의 사회상도 거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품의 감상이 쉽지 않았다.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 밀폐된 느낌도 강했고 공기도 좋지 않게 느껴졌다. 기본 관람하던 층에서 몇 계단 내려와야 하는 형식이라 선뜻 발이 움직이지 않아, 비치타월을 깔고 사운드를 들을 마음은 그리 들지 않았다.

8) 요코 테라우치_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는 곧 하나다

감탄이 우선 나오는 작업이었다. 벽 두 면을 차지하는 커다란 빨간 두루마리(웹페이지에는 2500cm로 표기되어 있는데 25,000cm를 오타기 한 것 같다)에 리듬을 타듯 구멍이 규칙적으로 뚫려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큰 두루마리를 맡은 다음 하나의 구멍만 뚫은 것이고, 이것을 쪽 펼쳤더니 구멍이 연달아 보이는 것이다. 참으로 대담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작품이었다.

이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깔끔하고 관객에게 탄성을 지어내게 하는 작업이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일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다른 작품과 설명이 굳이 있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작업에 부여된 나름의 타당한 의미가 있기는 하였지만, 꼭 그렇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관객 각자에 따라 나름의 이유와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작업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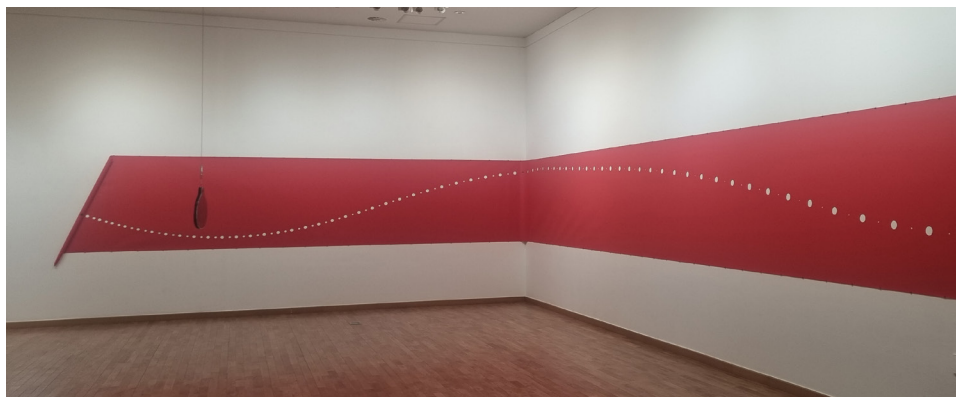
9) 차지량_보이는 모든 것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차지량 작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그는 일종의 스타였다.

부비를 보러 가기 약 한 달 전, 간만에 누구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다. 한 10년 전에 같이 전시를 보러 다니고 예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선생님이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에 대한 향수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우리 둘 다 그것에 대해 아련



(위) 라즈야쉬리 구디_지나친 겸손으로는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없다
(아래) 요코 테라우치_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는 곧 하나다



함이 있었고 그 이유를 몇 가지 꼽던 중, 당시에 활동하였던 스타성 있던 작가들의 사라짐이 그중 하나였다.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같은 단어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소 달랐는데, 간략히 표현하면 당시에는 예술선이 플랫폼도 플랫폼이었지만 오프라인 커뮤니티, 즉 크고 작은 대화와 워크샵, 파티와 술자리 등 다양한 대면 구조에서 관계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주목받는 이들도 그런 오프라인 기반의 활동을 통해 아바타가 아닌 실제의 인물, 단면이 아닌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사람들과 교감하였다. 마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람 중 하나처럼.(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무튼 그러한 향수가 있는 상태에서 차지량 작가의 작품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록을 통해 그는 예술을 업으로 하였던 인간 차지량의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진솔하게 접근하였고, 공간의 가운데를 위치한 미디어 작업은 그런 과정을 통해 설득력과 묘한 여운을 통해 무게감을 획득하였다. 사실 부비를 내려가는 중 SNS를 통해 누군가 차지량 작가의 작업을 감상하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라고 하였는데, 나 역시 그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내 기억에 남는 그의 과거작들을 떠올리면 이것도 어쩌면 연출된 구조, 감각은 아닐까 의심해보기도 하였다. 무엇이든 진솔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그것에 몰입하게끔 만들 시간과 방법들, 어떠한 기술들이 요구된다. 그것을 정말 잘 아는 이가 또 차지량 작가라고 생각하여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향수는 향수더라. 당시의 예술가들,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 비슷한 어떤 경험을 했던 이들에게 그가 보여준 이야기는 어떤 감정에 젖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상에서 사실 작업이 좋다 / 나쁘다 등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4. 정리하며 일단 좋았던 것은 전체적으로 영상작품들이 좋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비엔날레의 피로도도를 생각하면 영상작품들은 쉽사리 넘기고는 하는데, 적절한 동선 덕인지 작업들 자체가 좋은 것인지 이번에는 대체로 흥미롭게 보았다. 더블슬릿처럼 몰입도가 있어야 하는 영상은 홀을 별도로 내었고, 설치형식의 영상작품은 전시와 크게 거슬리지 않아 좋았다.

5. 아쉬웠던 것은 우선 작업에 대한 설명문이다. 어렵다. 각 작업이 안 그래도 충분히 복잡한 의미를 지닐 텐데, 비엔날레의 주제 의식과 함께 녹여내어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행사 특성상 반드시 관련 종사자만이 아닌 다양한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가 덜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밤의 수트라>라는 작업을 감상하던 중, 바로 뒤에 있는 홍이현숙 작가의 관객참여 작업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단순히 거슬린다가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쳐다볼 정도로 감상에 지장을 주는 일이었다. 이것은 명확한 기획의 미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었지만 아마 지금쯤 해결됐을지도.

내 편견일 수도 있는 지점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동남아 등 특정 문화권의 작품들이 선발될 때는 골판지라던가 마대자루, 전통의 방식으로 염색된 천과 같은 그런 재료들 위주의 작업으로 선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당 민족과 문화에 대한 설명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을 차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차등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였다. 🐱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일상의 바니타스



그림1_일상의 바니타스, 2024, ai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공허’, ‘헛됨’ 또는 ‘가치 없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16-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두개골이나 썩은 과일, 시계, 악기 등을 그린 정물화를 말하기도 한다. 바니타스 그림의 정물은 한결같이 “메멘토 모리”를 말하고 있다. 메멘토 모리(memeto mori)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다. 전통적인 바니타스화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두개골, 썩은 과일, 시계, 악기 등이 올라가 있다.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다소 먼 물건이다. 살짝 특별해 보인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탁자라는 무대 위에 정물이라는 배우와 소품들이 올라가 있다. 바니타스화에서는 작가의 간택에 의해 정해지지만, 우리 곁에 늘 있어 온 사물들도 그림의 정물이

될 수 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도 하다. 오늘 나의 장바구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상은

가끔은 살맛 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겹고, 갑갑하고 같은 하루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얼토당토 않은 대박을 꿈꿀 때도 있고 그렇다. 이런 일상에도 미래는 알 수 없고 죽음과 같은 일은 불시에 찾아온다. 있다. 앞서 바니타스 정물화가 알려주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다 아는 진리이다. 일상은 유한하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나의 저녁은 죽음이 빚겨 간, 크게 별일 없었던 가족들이 무사히 모여 밥을 먹는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식사 준비는 귀찮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고, 건디며 사는 일상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 의무적으로 가끔은 메멘토 모리와 감사의 마음을 환기시켜야겠다. 그래야 밥을 차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모든 장바구니와 밥상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공존한다.

검정비닐 봉투의 ‘파’는

줄기가 힘없이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봉지 밖으로 솟아 나왔다.

그리고 ‘파이삼 !’이라고 말해 준다.

+작업후기

첫번째 그림은(정물화) 이미지 생성 ai 인 Midjourney에 다음의 프롬프트(지시)로 얻어 낸 그림이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든 생각들을 적어본다. 짧은 미드저니 체험기이다.

-미드저니가 한국 대파를 모른다. 대파 레퍼런스 사진도 보여주고 했것만... 잘 인식이 잘 안된다. 고집이 세네~ 내가 잘못 지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프롬프트에 감자 4개와 양파2개 사과3개 등등 정물의 수량을 명시해 줬것만...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수동으로 정물을 옮기고 붙이고 했다. 다른 일들도 나 무시하는데 미드저니 너마저 나를 무시하다니...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구나ㅜㅜ (공모서류 탈락과 말 안 듣는 사춘기아들이 생각나서)

-기본 구도와 아이디어는 미디저니가 짜고, 포토샵으로 정물을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용한 도구이나 일년에 한 두번 보면 좋을 사전 같은 느낌이다. 유료사이트로 최소 1달을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일주일이나 시간당 결제하면 좋겠다.

Prompt:

This is a still life painting by Vanitas. A bunch of Thick Korean green onions are placed horizontally across the screen. and in front of the green onions and are 4 potatoes, 2 onions, 3 red apples, bright brown egg and a white plain take-out coffee cup with a lid. Vegetables are slightly wilted. There is an open black plastic bag in the back. Everything is laid out on a table covered with a clean cloth. Light coming from above. The background is pure white and details are emphasized, creating a mysterious and contemplative atmosphere. Oil painting style, Caravaggio's Baroque art style paid close attention to lighting effects and symbolic elements.--ar 3:2



그림2_나는파, 2024,디지털 페인팅



표지이미지 :

국수라는 음식에 큰 기대감을 갖기는 힘들다. 그동안 국수의 경우에는 라면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 국수집만 하여도, 원래는 내가 먹고 싶었던 것보다 같이 간 일행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고자 찾은 집이었다. 줄 서서 먹는다, 대기해가면서 먹는다는 후기 정도로 맛이 나쁘지 않겠지 정도만 생각했을 뿐. 그러나 가게에 도착하니 서면 역사 속 한페이지와 같은 시장통 노포 인테리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여기서 진짜 국수라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짬뽕 놀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토핑이나 국물이 독특한 것도, 뭔가 고기나 해물 같은 것이 왕창 들어 갇있는 것도 아니었다. 표현 그대로 국물에 깊은 진한 맛(아마 데포리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이 잔뜩 베어 있었는데 이게 한입으로 만족하지 못해 계속 들이키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다.(참고로 나는 멸치류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별도의 조미료나 특별한 양념이 첨가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진하면서도 산뜻하면서, 상당히 구수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양념장과 참깨도 딱 적당하게 국물의 느낌을 한층 끌어올린다.

면은 또 너무나 쫄깃하고 탱탱하였다. 안 그래도 가게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구장창 면을 찬물에 헹구고 있었는데 그 노력의 덕분인지 면 발이 한 가닥 한 가닥 입에서 존재감을 내뿜었다. 그러면서도 부담스럽거나 질긴 느낌이 아닌 국물과 적당히 조화를 이뤄 입안을 채우는 느낌.

어떤 이들은 국수를 먹을 때, 국물과 면을 많이 안 씹고 목으로 넘긴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의 국수는 그야말로 '나를 씹어 삼켜 주세요'라며 탄력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생각나서 침을 삼키게 되는 그런 마성이 있는 국수.

오래된 시장 노포 국수집이라 가격도 참 착했다. 심플한 김밥과 함께 먹었는데 집 앞이었다면 거의 매일 왔을 정도였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
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
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9, 스물일곱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화공간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유주, 마주, 오종원, X, 이채연